



즉시 배포용: 5/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조사하고 인상을 권고할
임금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주 노동부에 지시**

노동부 커미셔너 대행 Musolino가 임금위원회 선임; 권고는 7월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노동부 커미셔너 대행 Mario J. Musolino에게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을 조사하고 인상을 권고할 임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임금위원회는 약 3개월에 걸쳐 이 이슈를 검토하고 가능한 인상 관련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권고는 7월까지 예상되며 제정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법률에 의거 임금위원회는 특정 산업 또는 직군의 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 또는 직군의 최저 임금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부문은 잘 확립되고 번영하는 수십억 달러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에서 수 만명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데, 그 중 대다수가 여성, 가구의 일차 가장 및 복지 또는 기타 형식의 공적부조 수령자들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빈곤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 임금이 있는 목적이지만 오늘날 뉴욕주의 경우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빈곤과 정부 지원의 끝없는 순환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품위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본인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위한 명예와 정의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본인은 임금위원회가 올바른 것을 위해 쫓기하여 우리가 전진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Cuomo 지사가 노동부 커미셔너 대행 Musolino에게 한 지시를 발표한 컬럼의 전문을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오늘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저임금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고취의 날입니다”라고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SEIU)의 국제 총재 Mary Kay Henry가

말했습니다. “\$15와 노조 설립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패스트푸드 쿡 및 캐시어들은 근로자들이 단결할 때 우리 목소리가 경청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McDonald's 같은 대기업들이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빈곤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침체시키는 데 신물이 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은 최저 임금을 \$15로 올려 우리 경제를 균형잡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길을 열 것입니다.”

“오늘 Cuomo 지사와 뉴욕주는 그 길을 선도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200,000명에 가까운 패스트푸드 근로자들과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래 일하고 너무 적게 받는 다른 수 백만 명을 위해 희망과 앞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32BJ SEIU의 총재 Hector Figueroa가 말했습니다. “\$15와 노조는 수 천명의 엄마 아빠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힘들게 번 달러를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주입하며 공황 근로자 및 기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 임금 투쟁의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인상은 커뮤니티를 위해 좋고 경제를 위해 좋으며 뉴욕주를 위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에게 역사적 기회입니다”라고 Bronx에 사는 53세의 McDonald's 근로자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언젠가 자녀와 손자들을 대학에 보내기를 소망하는 Flavia Cabral이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구도 시간당 \$8.75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홉 차례나 파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중산층을 향한 공정 기회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입니다. 오늘 Cuomo 지사는 우리 목소리를 들었으며 — 저는 곧 우리가 \$15에 도달할 것임을 압니다. 시간당 \$15는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분이 고취됩니다.”

임금위원회 선임

법령의 요구에 따라 주 노동부 커미셔너는接客 업계의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임금위원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커미셔너의 판정 전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계, 기업 및 일반인을 똑같이 대표하는 적어도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위한 적정 최저임금과 규제를 검토하여 커미셔너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일반인 대표로서 Buffalo 시장 Byron Brown; 기업 대표로서 Gilt, MongoDB, Business Insider 및 Zola의 창업자 및 회장 겸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부회장 Kevin Ryan; 노동계 대표로서 서비스직 국제연맹 재무담당 Mike Fishman입니다.

법령에 따라 임금위원회는 두 번의 공청회를 첫 번째는 Buffalo에서 두 번째는 뉴욕시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7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커미셔너는 그 수령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명령을 발행할 것입니다.

공청회와 회의의 전체 스케줄은 곧 발표될 것입니다.

과거 진보의 토대

Cuomo 지사는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 왔습니다. [2013년에](#)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7.25에서 현재의 \$8.75 수준으로 올린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법안은 2015년 말까지 발효될 또 다른 점진적 \$9.00로의 인상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진보를 토대로 하여 계속해서 주지사는 뉴욕주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기 위한 그의 제안(원래 그의 [2015 기회 어젠다](#)의 일부로 발표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초에 [“공정 임금 투쟁”](#)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제안은 최저임금을 전수적으로는 \$10.50로 그리고 물가가 더 높은 뉴욕시의 경우에는 \$11.50로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 노동부가 Cuomo 지사 하에서 임금위원회를 구성한 두 번째입니다. [2014년 7월에](#) 주지사는 뉴욕주 식품 서비스 근로자 및 서비스 종업원(팁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변경을 권고할 임금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노동부에 지시하였습니다. 그 임금위원회의 결과로 팁을 받는 근로자의 현금 팁 임금 액수가 2011년 이래 인상되지 않은 올인 현재의 시간당 \$4.90, \$5.00, \$5.65 율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7.50로 인상될 것입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임금위원회로부터 노동부가 받은 권고안의 상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들

뉴욕주의 경우, 신입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년 약 \$16,920를 버는 데 – 이는 3인 가족 빈곤선보다 아주 아래이며 2인 가족의 그것보다는 겨우 \$1,010 위인 액수입니다.¹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서 최근 뉴욕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임금은 겨우 조금 움직여 – 2000년 이후 0.3% 올랐습니다(인플레이션 조정).² 이에 비해 평균적 패스트푸드 CEO들은 2013년에 2380만 달러를 벌어서 2000년보다 4배 이상이 되었습니다(역시 인플레이션 조정).³

패스트푸드 산업 근로자들이 버는 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 산업 노동력의 인구 구성 붕괴에 의해 악화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73%가 여성이고, 70%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며, 2/3 이상이 자녀를 양육하며 자기 가족 중에서 일차 소득자입니다.⁴
- 패스트푸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다른 근로 가족과 비교할 때 공적부조를 받을 확률이 2배입니다.⁵
- 전국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중에 52%(어느 다른 산업에서보다 가장 높은 비율)가 적어도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자들에게 년 70억 달러의 공적부조 비용입니다.⁶
- 뉴욕주의 경우, 모든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중 60%가 적어도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당 공적부조 지출이 1위로서, 년 \$6,800입니다. 그것은 납세자들에게 년 7억 달러의 공적부조 비용입니다.⁷

###

1. 뉴욕주 노동부. 직업별 임금. <https://labor.ny.gov/stats/lswage2.asp>
2. 데모. 패스트푸드 실패: CEO 대 근로자의 봉급 차이가 어떻게 산업 및 전반적 경제를 해치는가. 작성자: Catherine Reutschlin. 2014
3. 데모. 패스트푸드 실패: CEO 대 근로자의 봉급 차이가 어떻게 산업 및 전반적 경제를 해치는가. 작성자: Catherine Reutschlin. 2014
4. UC Berkeley. 패스트푸드, 빈곤 임금: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공적 비용. Sylvia Allegretto, Marc Doussard, Dave Graham-Squire, Ken Jacobs, Dan Thompson, Jeremy Thompson. 2013
5. UC Berkeley. 패스트푸드, 빈곤 임금: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공적 비용. Sylvia Allegretto, Marc Doussard, Dave Graham-Squire, Ken Jacobs, Dan Thompson, Jeremy Thompson. 2013
6. UC Berkeley. 패스트푸드, 빈곤 임금: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공적 비용. Sylvia Allegretto, Marc Doussard, Dave Graham-Squire, Ken Jacobs, Dan Thompson, Jeremy Thompson. 2013
7. UC Berkeley. 패스트푸드, 빈곤 임금: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공적 비용. Sylvia Allegretto, Marc Doussard, Dave Graham-Squire, Ken Jacobs, Dan Thompson, Jeremy Thompson. 2013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